즉시 배포용: 2020년 1월 2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9년 역사적으로 중요한 미성년자 음주 단속 결과 발표

미성년자 음주 소환장 및 압수된 위조 신분증의 기록적인 수치

*미성년자 판매 혐의 기소, **1,100**건 이상*

집행 노력, 젊은 뉴욕 주민들의 건강한 선택을 촉진하고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데 도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미성년자의 음주를 억제하고 건강과 공공 안전을 증진하려는 뉴욕주의 노력으로 인해 위조 신분증 압수 건수와 2019년에 발행된 소환장의 수가 기록적인 수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918개의 위조 신분증이 발각되었으며 이는 2018년 892개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알코올 구매를 시도한 미성년자에게 발부된 소환장의 수는 1,016건이었으며, 이는 2018년에 발행된 소환장의 수 922건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집행 이니셔티브는 젊은 뉴욕 주민들을 교육하고 도로에서 막을 수 있는 비극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성년자 음주는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하고 위험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기록적인 수치는 미성년자 음주를 단속하고 이를 허용한 자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려는 우리의 강력한 노력을 나타냅니다."

위조 신분증 압수와 소환장 발부는 뉴욕주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이 수행하는 연중 집행 노력인 Operation Prevent 이니셔티브의 일환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미성년자 음주와 주 전역의 콘서트 장소, 바, 레스토랑 및 알코올 소매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알코올을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2019년, 차량국 조사관들은 주 전역 127개 지역에서 단속 및 집행을 수행했습니다.

지역별 소환장 발부 및 위조 신분증 압수 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소환장	압수된 위조 신분증
주도 지역	122	123
센트럴 뉴욕	213	134
핑거 레이크스	325	269

롱아일랜드	82	82
미드허드슨 밸리	16	25
모호크 밸리	202	229
서던 티어	20	20
웨스턴 뉴욕	36	36

또한 주류 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 SLA)은 주 전역의 2,253개 지역에서 165건의 작업을 실시하였고, 미성년자 주류 판매에 대한 기소가 48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주류 관리청은 1,159건의 혐의를 기소했습니다.

주류 관리청은 또한 미성년자 및 술에 취한 고객을 상대로 하는 주류 판매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춘 알코올 교육 인지 프로그램(Alcohol Training Awareness Program, ATAP)을 통해 법 준수를 계속해서 유도합니다. 주류 판매 허가권자와 관련 직원들이 이수한 알코올 교육 인지 프로그램 교육 건수는 2018년 23,139건에서 2019년 27,092건으로 거의 20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미성년자 음주에 대처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주류 관리청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레스토랑 타번 연합회(Empire State Restaurant and Tavern Association)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무료 알코올 교육 인지 프로그램 훈련을 받은 400명 이상의 사업체 소유주와 직원이 포함됩니다.

차량국 커미셔너이자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 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위원장인 Mark J.F. Schroed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사원들은 진짜 같이 보이는 위조 신분증조차도 알아볼 수 있도록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위조 신분증을 구입하는 것이 돈을 낭비하고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될 위험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알코올 섭취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면 평생 지속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주류 관리청 Vincent Bradley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성년자 음주를 엄중히 단속하는 것은 주류 관리청의 최우선 사항입니다. 저희는 Cuomo 주지사님의 지도력하에, 불법 주류 판매를 단속함으로써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차량국 및 지역의 법률 집행 기관과 협업하여 우리의 자원을 눈에 띄게 증가시켰습니다."

뉴욕주 중독 서비스 및 지원 사무국(Office of Addiction Services and Supports, OASAS) 커미셔너 Arlene González-Sánch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예방 활동은 청소년에게 미성년자 음주와 관련된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Operation Prevent는 뉴욕주 전역에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미성년자 알코올 사용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알코올 구매 의도로 위조 신분증 혹은 위조문서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 딱지를 발부받게 되고, 운전면허증이 최소 90일에서 최대 1년까지 정지

또는 취소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로 주류 관리청에 적발된 사업체는 위반 시마다 최대 10,000달러의 민사 처벌을 받게 되며, 또한 재범자들은 주류 면허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직원이나 면허 소지자는 체포되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중독 서비스 및 지원 사무국 보고서에 따르면 21세 이전에 술을 마시는 것은 뇌 발달을 방해하여 20대 초반까지 잠재적인 학습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조기 알코올 섭취는 낮은 성적, 잦은 결석 및 높은 학교 중퇴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독으로 고생하는 뉴욕 주민이나 사랑하는 이가 중독으로 고생하는 뉴욕 주민들은 뉴욕주의 연중무휴 24시간 무료 HOPEline인 1-877-8-HOPENY(1-877-846-7369)에 전화하거나 HOPENY(단축 코드 467369)에 문자를 보내어 도움과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